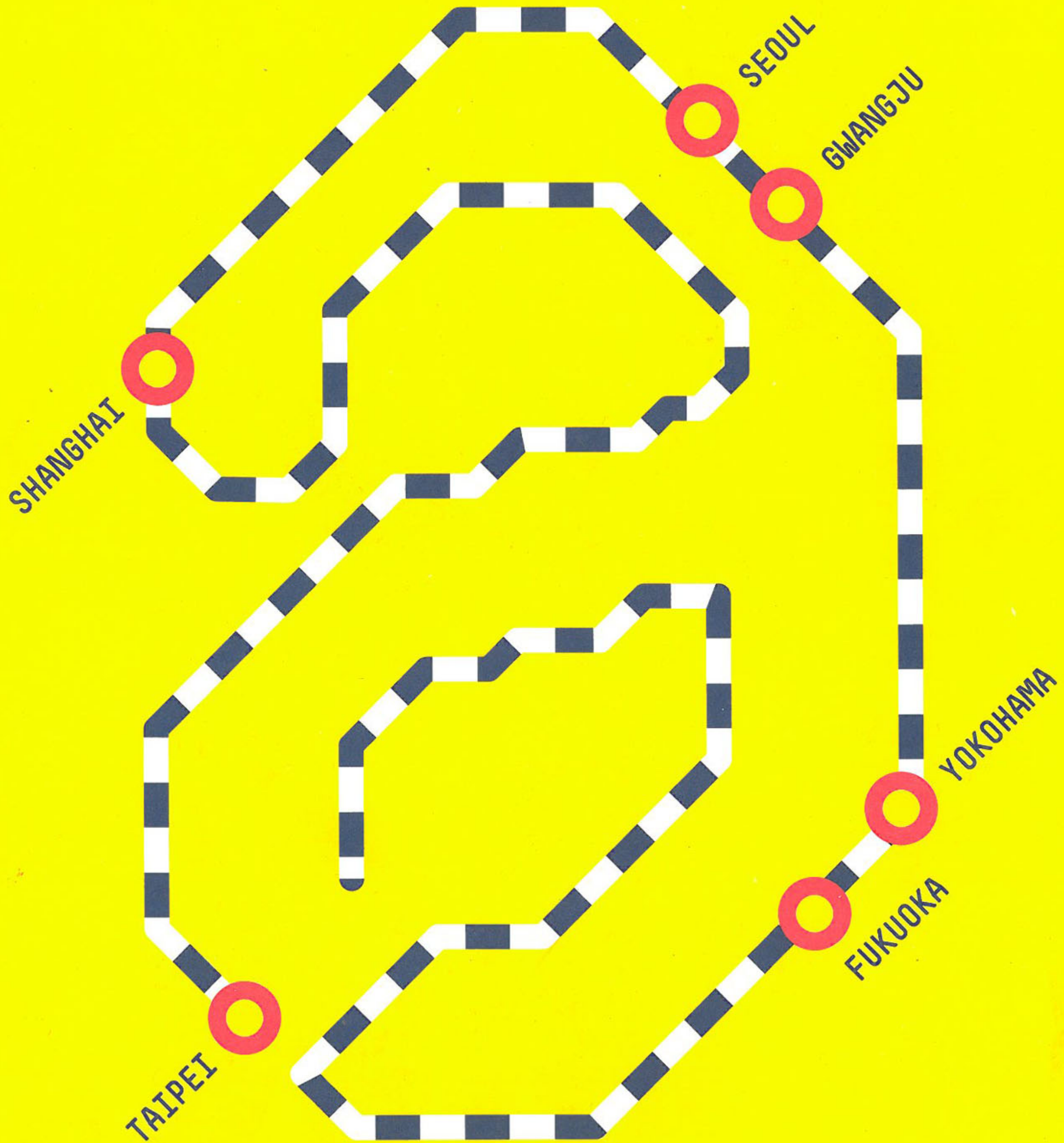


# article

a journal of contemporary art  
july 2014 issue #36

contains 20% art portrait; 25% art passage; 30% feature



From Asian Biennales

항 <아티클>



001  
773

07





김기라. 이념의 무게\_공동선 위에서. 2014

## 작가는 작업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김기라, 마지막 잎새  
페리지갤러리 / 5. 30-7. 5

지난 5월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에 페리지갤러리가 오픈했다. 개관전으로는 이념, 계층, 지역, 환경 등의 사회 문제를 다양한 매체로 표현하며 숨겨진 사회의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게 하는 김기라의 <마지막 잎새>전이 마련되었다.

전시 제목에서 유추되듯 김기라는 이번 전시에서 사회의 다양한 대립항 속 우리가 반드시 지켜내야 하는 것들을 제시하고자 했다. 즉, 그는 관객에게 이번 전시를 통해 최근 자신의 관심사이기도 한 '우리에게 공동선이라는 것은 존재하는가?' '우리는 이 사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행동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졌던 것이다.

이를 위해 그는 현장의 증인이자 관찰자 입장에서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 IT강국, 자본화에 잠식당한 나라인 한국 사회에 대해 자료 조사하고,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작가는 작업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를 자문한 결과들을 내놓았다. 그러한 작품들 중 <이념의 무게> 시리즈에서는 제주도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논란, 쌍용자동차의 노사문제, 천안함 사건 등과 관계된 갈등과 대립, 즉 서로에 대한 폭력적인 상황을 영상으로 담아냈다. 근작 <북쪽으로 보내는 서한들\_수취인 불명\_향해>에서는 냉면이란 아주 소소한 소재를 통해 남북의 관계에 대한 단상을 그려냈다. 동일한 맥락에서 무용수들과 협업한 <이념의 무게\_지각의 정치학\_진달래꽃>, <이념의 무게\_공동선 위에서>, <이념의 무게\_수정된 시각\_진달래꽃>, <이념의 무게\_숨 없이>는 북한과 통일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그 바탕에 인간 그 자체를 존중하는 마음이 깔려 있어야 함을 여러 방식으로 강조하려 했다.

이러한 김기라의 작품에 대해 신승오 페리지갤러리 큐레이터는 "이러한 일련의 행위들 속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파악하여야 하는 것들은 교육받고 학습되고 미디어의 눈으로 보는 보편타당한 맹목적인 공동선이 아닌, 개별자들의 차이에서 드러나는 진정성 있고 진실된 공동선이라는 점이다. 작가는 미술을 통해 그것을 찾을 수 있는 단초를 보여주기 위해 항상 열려 있고, 사회의 깊숙한 곳까지 파고들어야 한다는 의지를 이 전시를 통해 천명하고 있다. 이것이 김기라가 마지막 잎새라고 말하는 희망이 될지 절망이 될지 모르는 기로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말했다.